

아특별법·한전공대법 2월 국회서 처리되나 '관심 집중'

국회 오늘 개최...2·3일 교섭단체대표연설·4일부터 대정부 질문 판사 탄핵 소추안·상생연대 3법 처리 화두...지역 현안 뒷전 우려도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탄핵소추안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칫 지역 현안 법안 위 뒤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

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 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어서 출발부터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됐고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세

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보선을 앞둔 '북풍 공작'이라며 방어막을 높이고 있다.

법안 처리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야권과 경제계에서는 강제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안 추진에는 이견을 표한다.

특히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만 줄여도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을 편다.

민주당은 또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광주·전남 지역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제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해 이번 임시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아특별법 개정안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전공대법안은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21분 콤팩트(합축) 도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도봉구 플랫폼 창동61 공연장을 방문, 신대철 음악감독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상호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광운대역에서 지하철 1호선 지하화 및 철길 마루 현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 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절차 돌입

범여권 공동발의자 가결 정족수 넘겨...4일 표결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모래 (2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제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한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SNS에서도 탄핵안에 힘을 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도 임 판사 탄핵의 당위성을 다룬 글을 공유하면서 "정쟁이 아닌 입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생에 집중해야 할 지금 시기 추진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박영선·이상호 경선레이스 개막

오늘 유튜브 국민면접...나란히 서울 강북 도시 구상 밝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이 본격 레이스에 들어간다.

4·7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은 1일 일종의 검증 절차인 '국민면접'을 진행한다.

박영선·이상호 후보는 국민면접 하루 전인 31일 나란히 강북 민생 현장을 찾았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구 창동의 복합문화시설인 '플랫폼 창동 61'을 방문했다. '21분 생활권'을 내건 박 후보는 "서울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진 동북 4구(도봉, 노원, 강북, 성북)를, 21분 안에 직장 교육 보육 의료 문화 등이 모두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는 우 후보는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인 광운대역을 찾아가 1호선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면 단절된 마을이 이어지고 새로운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데다 부족한 주택공급도 해결할 수 있다"며 "강북 지역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앵커시설(핵심시설)이 역 주변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로에 대해 '신사적' 태도로 일관하던 두 후보는 1일 당 유튜브 방송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민면접을 시작으로 치열한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면접에서 두 후보는 공관위 질문, 사전 접수된 국민 질문, 실시간 온라인 질문에 각각 답변해야 한다. 두 후보가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서 정견 발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구례 수해 현장 방문

국민의힘 지도부가 설을 앞두고 지난해 수해를 당한 구례를 찾았다.

지난 31일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29일 전남 구례군청과 양정마을을 방문해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국 태풍, 수해 지역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고 설 연휴를 앞두고 의원들마다 지역을 나눠 다시 한번 점검에 나섰다.

주민들은 원인 조사가 장기화하고 피해 보상 비용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도 확인된 피해액은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가 부총리 등을 만나 협의하겠다.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 의료지원활동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원내부대표) 국회의원이 광주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선별진료소 의료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0일 이 의원은 올초부터 의료봉사활동했던 전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앞서 같은 달 29일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함께 코로나 대응 관련 부서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광산구 코로나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폈다. 광산구는 선제적 검사 진행을 비롯해, 접촉자·방문자에 대한 명단의 타지역 공유와 협조 등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보고했다.

이 의원은 "지도 단속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 대응이 뒷받침되길 바란다"면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킨 시민들이 애꿎은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구 대인동, 싹 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구, 14평) 오피스텔 허가 유
- ▶ 지하 1층 공사 중,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문의. 010-3605-50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